ELIO'S LITTLE DISCOVERIES

Again: Can I Sit Here?

다시 이어 보는 바구니를 옮기는 차례



9세 · Day 031 · 함께 읽기 · 3장면



Bori looked at the basket. “There is no room for me.” Elio looked at the mat. “What can we move?”



“The basket!” said Elio. He lifted it off the mat. Bori watched the space appear.



“Now there is room,” said Elio. “Room for two!” said Bori. They sat side by side.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같은 책의 뒤 세 장을 다시 펼쳐요.

함께 읽을 때

‘The basket!’을 읽을 때 아이 손이 바구니를 들어 올리는 시늉을 해도 좋아요.

생각 나누기

질문한 뒤 바로 바구니를 옮겼나요, 아니면 무엇을 먼저 했나요?

생활에서

방석과 바구니로 같은 순서를 다시 해 봐요.

《A Place for Bori》의 같은 여섯 그림에 새 대사를 더한 함께 읽기 확장판이에요. 누적 파닉스로 통제한 독립 해독 자료가 아니에요.

ELIO expanded reader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